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8일(목) 총 3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복지정책팀장 남경선 ☎440-2911 • 담당자 조귀환 ☎440-2912 • 담당자 박진 ☎440-291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보건복지부 복지사업평가 역대 최다 수상 영예 ... 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 장기요양 부문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등 5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 -
- 모든 시민이 누리고 체감하는 전국 최고의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장기요양부문 ‘대상’을 비롯 총 5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노인정책(장기요양),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기초연금 사업추진 분야 등 총 5개 분야다.

※ 2022년 복지국 수상내역

연번	관련부서	분 야	포상등급
계		총 5개 부문	
1	노인정책과	노인정책 (장기요양 부문)	대 상
2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최우수
3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최우수
4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 수
5	노인정책과	기초연금사업 추진	장관표창

지난 2016년 2개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역대 최다 수상이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센터 운영 및 처우개선 사업,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는 노인정책분야 시·도 장기요양부문에서는 ‘대상’을 수상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노인정책분야 장기요양부분에서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2월 「인천시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같은해 7월 ‘인천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개소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피돌봄 사례에 적극 대응해 사회서비스원과 10개 군·구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548명에게 긴급틈새 돌봄을 제공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밖에 국비 매칭 예산 외에도 시비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역 내 긴급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과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대시민 홍보(지하철, 버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군·구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0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협력해 1천 571억의 예산을 투입해 550여개 사업단을 운영, 총 4만7,44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방역을 강화하며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목표 대비 106.5%를 초과 달성한 것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인천시의 사회보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 통합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시·군·구 계획 간 연계성 강화와 군·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해 지역 간 복지격차를 개선했다는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초연금사업 추진은 기초연금 수급·신청에 행정처리 신속성, 예산집행 적절성 등 기초연금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인천시 복지사업 우수성이 입증됐다. 복지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복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수한 점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여 모든 시민이 누리고 체감하는 전국 최고의 행복한 복지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